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만족도가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The Effect of Elderly Volunteerism Satisfaction on the Ego-Integrity (Moder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이안나, 조성숙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노인복지학과

An-Na Lee(jaena@hanmail.net), Sung-Sook Cho(sscho49@hoseo.edu)

요약

본 연구는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만족도(개인적 성취, 사회적활동, 사회적 책임)가 자아통합감(삶에 대한 태도, 현재 생활 만족, 과거의 수용, 노령의 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60대 이상 노인 3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주성분 요인 분석, 신뢰도 분석 및 T-test, ANOVA, 회귀분석 등을 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자원봉사 활동 만족도가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개인적 성취가 자아통합감에 정(+)적 영향을 주었다. 둘째, 자원봉사활동 만족도와 자아통합감 간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는 삶에 대한 태도와 현재 생활 만족에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나 자원봉사활동 만족도와 과거의 수용 및 노령의 수용 간의 영향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만족도, 자기효능감 및 자아통합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 중심어 : | 노인 | 자원봉사활동 | 자아통합감 | 자기효능감 |

Abstract

In this study, I tried to find the effect of elderly volunteerism satisfaction(personal achievements, social activity, social responsibility) on the ego-integrity(attitude about life, satisfaction of the present life, the acceptance of the past living, the acceptance of aging). For the study, I collected 360 samples from people of 60 year-old adults who reside of in Gyeonggi-do. I used frequency analysis, 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T-test, ANOVA, hierachial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 18.0.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volunteerism satisfaction on the ego-integrity, In the way of the effect of only personal achievements affects positive effects. Second, effect of self-efficacy volunteerism on the satisfaction and the ego-integrity between analysis attitude about life and satisfaction of the present life are meaningful but the acceptance of the past living and the acceptance of aging are not meaningful anout moderating effects. Theird, satisfaction about aged population sociological character level of significance were difference in factors.

■ keyword : | TheAged | Volunteerism | Ego-integrity | Self-efficacy |

I. 서론

고령화에 관하여 최근처럼 화두가 된 적이 있을까 할 정도로 고령화는 국내는 물론 전 지구촌의 관심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의 세계보건기구[1]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수명은 남자는 77세, 여자는 84세였다.

뿐만 아니라 65세 이전까지의 건강관리에 따라서는 100세까지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예측이 있는가 하면, 최근 영국의 런던에 있는 한 대학에서 20세에서 75세까지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생애 중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가 언제였는가 하는 흥미 있는 조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 23세 때와 69세에 가장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

비록 이러한 결과가 아니더라도 오늘날의 노인은 종전처럼 여생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정점에서 의미 있는 삶을 추구 할 수 있음을 잊 볼 수 없다. 활기찬 노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전 영역에 걸쳐서 그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 몇 년 전에 인터넷에 올린 한 노인이 95세에 맞이한 자신의 생일날, 은퇴 후 자신의 무익한 삶에 대한 회의감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라도 남은 생애를 의미 있게 보내겠다는 결심을 한 내용이 화제가 되었다[3]. 이제 노년기는 종전처럼 은퇴 후 10년 내지 20년 정도를 보내는 여생이 아니라 삼사십년도 족히 더 살아야 하는 긴 기간이다. 따라서 얼마나 오래 사는가가 아닌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물론 고령화 시대에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는 실로 다양하며 해결 방안 또한 매우 만만치 않다. 최근의 한 연구에서 노인의 삶의 만족도 요인을 여러 영역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정서상태, 대인관계와 함께 자아존중 만족도를 포함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4]. 이는 오늘날 노인에게 있어서 가치 개념이 변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인의 삶에 있어서 만족도는 대단히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가운데서 가장 의미 있는 만족도 중의 하나로 노인의 자원봉사 활동만족도를 들 수 있다고 본다. 타인과 사회를 향한 의미를 찾는 것 중에서 '자원봉사'라는 단어처럼 와 닿는 것도 흔하지 않다. 노년기 이전까지의 다양한 삶을 통하여 발휘하였던 재능과 끼를 아낌없이 나눌 수 있다면 이는 점점 각박해져가는

오늘날의 지역사회를 위한 바람직한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자원봉사를 통하여 주변에 유익을 끼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점점 소외되고 무기력한 노년기에 노인 자신의 새로운 활력을 통하여 자아통합감을 회복한다는 관점에서도 노인의 자원봉사는 또 하나의 변수로 삼을 수 있다. 자원봉사와 관련한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대체로 자원봉사 만족도의 연구가 제시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만족도 그 자체보다도 자원봉사가 자기효능감과 함께 노인의 자아통합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를 살펴보는데 주안을 두었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 만족도(개인 성취, 사회적 활동, 사회적 책임)가 자아통합감, 즉 삶에 대한 태도, 현재 생활 만족, 과거 및 노령의 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특히 자기효능감이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살펴봄으로써 노년기에 점점 약화되기 쉬운 자기효능감과 자아통합감의 중요성을 탐색해 보았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서 첫째, 노인 자원봉사활동만족도가 노인의 자아통합감을 증가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며 둘째, 자기효능감을 향상 시키는데 필요한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자원봉사활동 만족도는 자아통합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자원봉사활동 만족도가 자아통합감에 영향을 미칠 때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만족도, 자기효능감 및 자아통합감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자원봉사활동 만족도

종전까지의 노인의 자원봉사활동만족도와 관련된 연구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노인은 하지 않는 노인에 비해 일상생활에서 충분한 에너지와 활력이 넘치는 것으로 제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원봉사활동 만족도를 개인적 성취, 사회적 활동, 사회적 책임으로 구분하여 이를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1.1 개인적 성취

Teaff는 자원봉사활동이 노인자신들에게 유용함을 느끼게 해주거나 소외감을 없애며 노인들 자신이 절실히 원하는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받으며, 상실되었던 역할 회복 기회와 지위를 보충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5]. 이성록은 자원봉사자를 잃어버린 인간성을 회복하고 행복을 유지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환경을 자발적·자주적으로 만들어가는 개개인들의 협동적·체계적 노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6]. Michigan 대학의 한 조사 연구에서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도 도움이 되며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은 다른 어떤 활동 보다 더욱 평균수명을 연장시켜 준다고 밝혔다[7]. Locke는 자원봉사활동 만족을 자신의 직무에 대한 평가에서 얻게 되는 유쾌한 그리고 긍정적 감정 상태라고 하여, 활동과 관련된 개인의 정서로 보았다[8].

1.2 사회적 활동

Havighurst와 Albrecht에 의해서 처음 주장된 활동이론(activity theory)에 따르면 노인의 사회적 활동과 노년기의 성공적인 적응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9]. 또한 노인의 사회적 활동의 참여정도가 높을수록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높아진다는 것으로 많은 연구에서 지지되어 왔다[10]. Chapman과 Beaudet의 연구에서는 사회활동 참여를 많이 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며, 사회적 참여도가 삶의 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1]. 욕구의 관계에서 Francies가 제시한 자원봉사자의 동기 중에는 사회적 활동을 포함하였다[12]. Manser와 Cass는 개인이 기관을 선택하고 선택한 기관을 통하여 공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자발적이고 사적인 활동이라고 표현하였다[13]. Bernard는 노인들이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고 노인의 역할이 제한되고 있는 현실에서,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으며, 특히 노인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뜻하지 않은 경험을 얻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14].

1.3 사회적 책임

조희열은 자원봉사를 특정한 요구 하에 사회적 책임

감을 가지고 의무감에서 벗어나서 자발적으로 선택한 활동으로 보았다[15]. 김한구는 어떤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육체적 자원이나 능력을 활용하여 타인과 사회를 위하여 자발적,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16]. Francies는 자원봉사는 사회적 책임감의 욕구 즉, 타인에 대한 관심 및 배려로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삶의 변화와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욕구라고 하였다[12]. 김창석은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은 개인적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안겨주며, 우리사회의 노인문제를 해결해주는 요인이라고 보았다[17]. Moore는 타인 지향적(Other-directed)이론에서 자원봉사를 두 유형으로 구분하여 협력과 이타주의로 분류하고 이를 친 사회적 행동으로 보았다[18].

2. 자기효능감 (조절효과)

사회인지 이론에서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특정 상황에서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신념을 의미하며,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화하고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으로 정의된다[19]. Bandura에 의하면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효능감이 낮은 사람에 비해 문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신장 시킨다고 하였다[20]. Bandura, Anderson and Betz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에서 성공경험은 효능감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자신과 유사한 사람의 성공에 대한 관찰을 통한 대리경험도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1][22].

3. 자원봉사활동 만족도가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3.1 삶에 대한 태도

Erikson은 노년기에 해결해야할 심리사회적 발달위기를 자아통합감(Ego-integrity)대 절망(despair)이라고 하고, 자아통합감이란 노인들의 현재생활에 대한 만족감, 행복감, 사기 뿐 만 아니라 지나간 일생에 대한 수

용 및 궁극적으로 죽음에 대한 수용까지도 포함하는 보다 일반적이고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라 하였다[23]. 변호순·김교성 등의 연구에서 자아통합감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하는 믿음을 의미하는 자아존중감으로 보았다[24]. 자아통합감은 노년기의 심리적인 안녕상태를 반영하는 포괄적인 개념[25]으로서,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사람들은 지나온 인생에 대해 최선을 다한 의미 있는 일생이었다는 만족스러운 느낌과, 달성하지 못한 일보다 이룩한 일과 행운에 감사하는 태도로 볼 수 있다[26]. 따라서 노인의 자아통합감은 지나간 일생동안에 대한 수용 및 궁극적으로 죽음에 대한 수용까지 포함하는 심리적 안녕 상태의 개념으로 쓰인다고 볼 수 있다[27].

3.2 현재 생활만족

이미란의 연구에서는 자아통합(ego-integrity)은 자신의 인생이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가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보았다[28]. 주희정은 현재의 생활에서 우울이 낮고,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통합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29]. 자아통합감은 현재 생활에 만족하며 과거, 현재, 미래 간의 조화된 견해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전반적인 삶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30], 활동이론에서는 사회적 활동의 참여정도와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았고, Barrow[31]는 활동을 많이 하는 노인일수록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더욱 잘 적응한다고 하였다[32]. 즉 사회활동수준이 높을수록 노인의 생활만족도도 높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진다는 것이다[33]. 결국 자원봉사 참여과정에서 심리적 측면이나 생활적인 측면이 긍정적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34].

3.3 과거의 수용

성공적 노년기의 방법으로 과거의 수용은 중요한데, 김지현의 연구에서는 죽음에 대한 태도가 노화의 결과인 노년기 자아통합감의 인식과 실제 성취정도를 예측해주는 변인임을 검증하였다[35]. 윤진은 자아통합감을 달성한 사람은 성숙함을 보이며[36], 과거생활유형을

수용하고 평온해지며 자아실현을 기꺼이 계속하며 죽음을 수용한다고 하였다[37]. Butler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다는 자각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수용 태도를 높인다고 주장하였다[38]. 결국 인간은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통합을 성취하게 되며, 자아통합감을 달성한 사람은 성숙함을 가지고 과거의 생활유형을 수용하고 평온해지며 죽음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게 된다[39][40].

3.4 노령의 수용

자아통합감을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고, 수용하며 인생과정의 중심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깊은 배려를 통해 세상을 사는 지혜를 얻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41]. Erikson은 노년기의 발달과업으로 자아통합감을 제시하면서 이는 자신의 생을 만족스럽고 의미 있게 생각하며 남은 생과 다가올 죽음을 수용하는 태도라고 하였으며, 이 시기에 자아통합감을 성취하지 못하면 절망감에 빠지게 된다고 하였다[42]. 또 다른 연구에서는 노령의 수용에 있어서 자아통합감의 결여는 죽음에 대한 공포로 나타나고 불만족스런 노년기를 보내게 된다고 하였으며[37], 노령의 수용은 타인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으로 현실화하는 것이라 하였다[43].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이론적 배경과 연구문제를 토대로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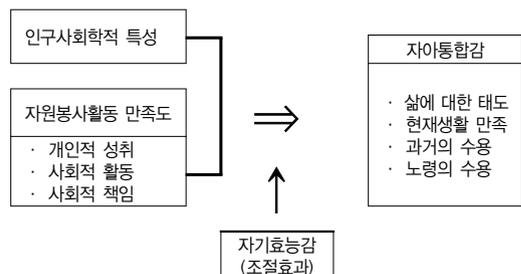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2. 자료 수집 및 분석

연구대상은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고 설문조사는 2013년 3월2일부터 4월 10일 까지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 총 320부 중에서 결측 값이 없는 318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고, SPSS Win Ver. 18.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자원봉사활동 특성의 파악은 빈도분석을 사용하였다. 둘째, 개념변수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요인분석과 주성분 요인분석으로 타당성을 검증 하였고 셋째, 개념변수의 신뢰성은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고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여 검증하였으며 넷째,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만족도가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관계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고,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만족도, 자기효능감 및 자아통합감의 차이는 t검증(t-과 분산분석(ANOVA)을, Scheffé test를 사용하여 사후검증을 하였다.

3.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인 설문지는 독립변수인 자원봉사활동의 하위변인으로 개인적 성취, 사회적 활동, 사회적 책임 등으로 구분하였고, 종속변수는 자아통합감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자기효능감을 조절변수로 사용하여 자원봉사활동만족도와 자아통합감의 영향관계에서 효과를 검증하였다.

자원봉사활동 만족도에 관련된 하위변인 3가지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서 김창석이 사용한 설문 문항을 12문항으로 재구성하였고[44] 자원봉사 활동 만족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총 12문항의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치 1.0이상인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하위변인으로 개인적 성취(4항목), 사회적 활동(3항목), 사회적 책임(3항목)을 선정 하였다. 각 요인에 대한 신뢰성 분석 결과에서는 Cronbach's α 계수가 개인적 성취 0.783, 사회적 활동 0.646, 사회적 책임 0.642로서 신뢰도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자아통합감에 관한 측정하기 위해서 Miller[44]와

Erickson[23]등을 통해 설정된 개념적 틀에 기초하여, 김정순이 직접 개발한 척도를 24문항으로 재구성하였으며[30] 그 결과 고유치 1.0이상인 4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삶에 대한 태도(9항목) 현재생활 만족(6항목)

과거의 수용(4항목) 노령의 수용(4항목)이라 명명 하였고 각 요인에 대한 신뢰성 분석 결과에서는 Cronbach's α 계수가 삶에 대한 태도 0.900, 현재생활 만족 0.857, 과거의 수용 0.768, 노령의 수용 0.641로서 신뢰도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조절변수인 자기효능감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서 Shere[45]가 사용한 문항을 기초로 하여 5문항으로 자기 만족요인을 새로이 구성하여 사용 하였고 고유치 1.0이상인 1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신뢰성 분석 결과에서는 Cronbach's α 계수가 0.845로 나타나 신뢰도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매우 그렇다(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까지 응답하도록 하여 측정 하였다.

4. 연구대상의 특성

본 연구는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학력, 직업유무, 종교유무, 자녀동거여부, 건강상태, 경제상태, 배우자유무, 남은여생, 친구 수, 여가생활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164	51.6
	여성	154	48.4
연령	60세~64세	30	9.4
	65세~69세	138	43.4
	70세~79세	117	36.8
	80세 이상	33	10.4
학력	무학	43	13.5
	초등학교 졸업	93	29.2
	중학교 졸업	104	32.7
	고등학교 졸업 이상	78	24.5
직업유무	있다	168	52.8
	없다	150	47.2
종교유무	있다	225	70.8
	없다	93	29.2
자녀동거여부	함께 살고 있다	123	38.7
	함께 살지 않는다	195	61.3

건강 상태	매우 나쁘다	35	11.0
	나쁜 편이다	118	37.1
	그저 그렇다	113	35.5
	좋은 편이다	52	16.4
경제 상태	매우 어렵다	47	14.8
	약간 어렵다	135	42.5
	그저 그렇다	106	33.3
	어렵지 않다	30	9.4
배우 자유 무	있다	190	59.7
	없다	128	40.3
남은 여성	3-5년 이내	60	18.9
	5-10년 이내	164	51.6
	10년 이상	94	29.6
친구 수	3명 이내	75	23.6
	3-5명 이내	127	39.9
	5명 이상	116	36.5
여가 생활 및 장소	노인정	99	31.1
	복지회관	47	14.8
	취미생활	78	24.5
	산책, 운동	94	29.6

IV. 연구 결과

1. 자원봉사활동 만족도가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만족도가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통제변수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자원봉사활동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자아통합감을 종속변수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 모형에서는 통제변수인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를 투입하였고, 2단계 모형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자원봉사활동 만족도를 동시에 투입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통제된 상태에서 자원봉사활동 만족도 변수의 상대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자아통합감의 각 요인별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1 자원봉사활동 만족도가 삶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자원봉사활동 만족도가 삶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을 통제변수로, 자원봉사활동 만족도(개인적 성취, 사회적 활동, 사회적 책임)를 독립변수로 하고, 삶에 대한 태도를 종

속변수로 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1단계에서 투입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포함한 회귀 모형의 경우 $F=14.154, p<.001$ 에서 유의하였고, 구체적으로, 성별($t=-3.974, p<.001$)과 학력($t=-4.275, p<.001$), 직업유무($t=-3.626, p<.001$)는 부(-)적 영향을 준데 반해, 종교유무($t=2.797, p<.01$), 배우자유무($t=4.757, p<.001$), 남은여성($t=5.290, p<.001$), 친구수($t=3.265, p<.01$), 여가생활 및 장소2($t=3.550, p<.001$), 여가생활 및 장소3($t=4.571, p<.001$)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이면서 학력이 낮고 직업이 없는 노인일수록, 종교와 배우자가 있고 남은여생을 길게 인식할 뿐 아니라 복지회관을 다니면서 취미생활을 가진 노인일수록 삶에 대한 태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2단계에서 통제변수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자원봉사활동 만족도의 3개 요인(개인적 성취, 사회적 활동, 사회적 책임)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결과 회귀모형의 F 통계값이 16.059로서 $p<.001$ 에서 유의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는 배우자유무($t=5.555, p<.001$), 남은여성($t=6.031, p<.001$), 여가생활 및 장소1($t=3.098, p<.01$), 여가생활 및 장소2($t=2.694, p<.01$), 여가생활 및 장소3($t=4.224, p<.001$)은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자원봉사활동 만족도의 요인 중에서는 사회적 활동과 사회적 책임을 제외하고 개인적 성취($t=6.239, p<.001$)가 삶에 대한 태도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는 종교적 가르침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자녀, 손자녀의 모범이 되고 인격수양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자신의 삶을 보다 가치 있게 만드는 등 개인적 성취로 인해 자원봉사활동에 만족할수록 삶에 대한 태도가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원봉사활동 만족도의 요인 중 개인적 성취만이 삶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본 연구의 1-1(자원봉사활동 만족도는 삶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1.2 자원봉사활동 만족도가 현재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

자원봉사활동 만족도가 현재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을 통제변수로, 자원봉사활동 만족도(개인적 성취, 사회적 활동, 사회적 책임)을 독립변수로 하고, 현재생활 만족을 종속 변수로 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 자원봉사활동 만족도와 삶에 대한 태도의 영향관계 분석결과

독립변인	단계	1단계		2단계	
		β	t	β	t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190	-3.974***	-.132	-2.874**
	연령	.017	.323	.022	.437
	학력	-.231	-4.275***	-.168	-3.215**
	직업유무	-.192	-3.626***	-.157	-3.128**
	종교유무	.136	2.797**	.055	1.153
	자녀동거여부	.052	1.069	.006	.122
	배우자유무	.238	4.757***	.261	5.555***
	건강상태	-.032	-.614	-.023	-.469
	경제상태	.026	.469	.058	1.117
	남은여생	.278	5.290***	.298	6.031***
	친구수	.163	3.265**	.029	.565
	여가생활및장소				
	여가생활및장소1	.124	1.946	.189	3.098**
	여가생활및장소2	.195	3.550***	.141	2.694**
여가생활및장소3	.250	4.517***	.223	4.224***	
자원봉사활동 만족도	개인적 성취			.356	6.239***
	사회적 활동			-.017	-.363
	사회적 책임			.003	.069
F		14.154***		16.059***	
R ²		.395		.476	
ΔR^2				.081	

그 결과 [표 3]에서와 같이 1단계에서 투입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포함한 회귀모형의 경우 F=16.135, p<.001에서 유의하였다.

현재생활 만족에 대하여 성별(t=-2.004, p<.05)과 학력(t=-5.773, p<.001), 자녀동거여부(t=-2.302, p<.05), 여가생활 및 장소3(t=-2.072, p<.05)은 부(-)적 영향을 미쳤으나, 연령(t=2.917, p<.01), 종교유무(t=2.321, p<.05), 경제상태(t=2.858, p<.01), 남은여생(t=3.956, p<.001), 친구수(t=6.228, p<.001), 여가생활 및 장소2(t=3.355, p<.001)는 정(+)적 영향을 주고 있었다.

2단계에서 통제변수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자원봉

사활동 만족도의 3개요인(개인적 성취, 사회적 활동, 사회적 책임)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결과 회귀모형의 F 통계값이 21.666으로서 p<.001에서 유의하였다.

직업유무(t=2.423, p<.05), 배우자유무(t=2.495, p<.05), 경제상태(t=3.969, p<.001), 남은여생(t=5.030, p<.001), 친구수(t=2.931, p<.05), 여가생활 및 장소2(t=2.461, p<.05)는 정(+)적 영향을 주고 있었다.

자원봉사활동 만족도의 요인 중에서는 사회적 활동과 사회적 책임을 제외하고 개인적 성취(t=7.863, p<.001)가 현재생활 만족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사회활동수준이 높을 수록 노인의 생활만족도도 높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진다는 Bengton[33]의 이론과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원봉사활동 만족도의 요인 중 개인적 성취만이 현재생활 만족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본 연구의 가설 1-2(자원봉사활동 만족도는 현재생활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1.3 자원봉사활동 만족도가 과거의 수용에 미치는 영향

자원봉사활동 만족도가 과거의 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을 통제변수로, 자원봉사활동 만족도(개인적 성취, 사회적 활동, 사회적 책임)를 독립변수로 하고, 과거의 수용을 종속변수로 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4]에서와 같이 1단계에서 투입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포함한 회귀모형의 경우 F=13.797, p<.001에서 유의하였다.

과거의 수용에 대하여 성별(t=-3.264, p<.01)과 학력(t=-3.320, p<.01), 직업유무(t=-3.471, p<.01), 건강상태(t=-4.006, p<.001)는 부(-)적 영향을 미쳤고, 종교유무(t=2.036, p<.05), 배우자유무(t=4.627, p<.001), 남은여생(t=5.024, p<.001), 친구수(t=4.284, p<.001), 여가생활 및 장소2(t=3.596, p<.001)는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이면서 학력이 낮고 직업이 없으며 건강이 나쁠수록, 종교와 배우자가 있고 남은여생을 길게 인식할 뿐 아니라 복지회관을 다니고 있는 노인일수록 과거에 대한 수용이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표 3. 자원봉사활동 만족도와 현재생활 만족의 영향관계 분석결과

독립변인	단계	1단계		2단계	
		β	t	β	t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093	-2.004*	-.023	-.533
	연령	.151	2.917**	.152	3.301**
	학력	-.303	-5.773***	-.226	-4.672**
	직업유무	.074	1.431	.112	2.423*
	종교유무	.110	2.321*	.001	.016
	자녀동거여부	-.110	-2.302*	-.162	-3.753***
	배우자유무	.083	1.713	.108	2.495*
	건강상태	.017	.326	.022	.486
	경제상태	.154	2.858**	.192	3.969***
	남은여성	.202	3.956***	.230	5.030***
	친구수	.303	6.228***	.138	2.931*
여가생활및장소	여가생활및장소1	.020	.322	.109	1.920
	여가생활및장소2	.179	3.355**	.119	2.461*
	여가생활및장소3	-.111	-2.072*	-.129	-2.638**
자원봉사활동 만족도	개인적 성취			.415	7.863***
	사회적 활동			.050	1.148
	사회적 책임			.001	.012
F		16.135***		21.666***	
R ²		.427		.526	
ΔR^2				.198	

2단계에서 통제변수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자원봉사활동 만족도의 3개 요인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결과 회귀모형의 F 통계값이 17.101로서 $p < .001$ 에서 유의하였다.

여가생활 및 장소3($t = -2.220, p < .05$)은 과거의 수용에 부(-)적 영향을, 배우자유무($t = 5.496, p < .001$), 남은여성($t = 5.990, p < .001$), 여가생활 및 장소1($t = 3.471, p < .01$), 여가생활 및 장소2($t = 2.818, p < .01$)는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활동 만족도의 요인 중에서는 사회적 활동과 사회적 책임을 제외하고 개인적 성취($t = 6.490, p < .001$)가 과거의 수용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자원봉사활동 만족도의 요인 중 개인적 성취만이 과거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본 연구의 가설 1-3(자원봉사활동 만족도는 과거의 수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1.4 자원봉사활동 만족도가 노령의 수용에 미치는 영향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을 통제변수로, 자원봉사활동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노령의 수용을 종속변수로 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5]에서처럼, 배우자유무($t = 3.235, p < .01$), 남은여성($t = 2.195, p < .05$), 친구수($t = 4.435, p < .001$)는 정(+)적

표 4. 자원봉사활동 만족도와 과거의 수용의 영향관계 분석 결과

독립변인	단계	1단계		2단계	
		β	t	β	t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156	-3.264**	-.097	-2.157*
	연령	.091	1.704	.095	1.931
	학력	-.180	-3.320**	-.101	-1.972*
	직업유무	-.185	-3.471**	-.151	-3.067**
	종교유무	.099	2.036*	.001	.022
	자녀동거여부	-.006	-.113	-.050	-1.079
	배우자유무	.232	4.627***	.254	5.496***
	건강상태	-.212	-4.006***	-.209	-4.290***
	경제상태	.030	.540	.063	1.229
	남은여성	.265	5.024***	.291	5.990***
	친구수	.215	4.284***	.063	1.257
여가생활및장소	여가생활및장소1	.122	1.918	.209	3.471**
	여가생활및장소2	.199	3.596***	.145	2.818*
	여가생활및장소3	-.101	-1.819	-.116	-2.220*
자원봉사활동 만족도	개인적 성취			.365	6.490***
	사회적 활동			.030	.647
	사회적 책임			.044	.908
F		13.797***		17.101***	
R ²		.389		.492	
ΔR^2				.103	

영향을 주고 있었다. 다시 말해, 남성이면서 학력이 높고 종교와 배우자가 있으며 자녀와 동거할 뿐 아니라 남은여성을 길게 인식하고 친구수가 많은 노인일수록 노령에 대한 수용이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2단계에서 통제변수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자원봉사활동 만족도의 3개 요인(개인적 성취, 사회적 활동, 사회적 책임)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결과 회귀모형의 F 통계값이 16.059로서 $p < .001$ 에서 유의하였다.

배우자유무($t = 3.816, p < .001$), 남은여성($t = 2.689, p < .01$), 여가생활 및 장소1($t = 2.062, p < .05$)은 정(+)적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상에서와 같이 자원봉사활동 만족도의 요인 중 개인적 성취만이 노령의 수용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본 연구의 가설 1-4(자원봉사활동 만족도는 노령의 수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표 5. 자원봉사활동 만족도와 노령의 수용의 영향

독립변인	단계	1단계		2단계	
		β	t	β	t
인구사회 학적 특성	성별	-.244	-4.970***	-.190	-3.987***
	연령	.021	.382	.024	.461
	학력	.140	2.514*	.199	3.665***
	직업유무	.023	.427	.055	1.051
	종교유무	.306	6.111***	.226	4.567***
	자녀동거여부	.105	2.079*	.063	1.293
	배우자유무	.166	3.235**	.187	3.816***
	건강상태	-.095	-1.747	-.088	-1.709
	경제상태	-.016	-.279	.013	.248
	남은여성	.119	2.195*	.138	2.689**
	친구수	.229	4.435***	.102	1.920
	여가생활및장소				
	여가생활및장소1	.066	1.015	.131	2.062*
여가생활및장소2	.046	.810	-.003	-.053	
여가생활및장소3	-.002	-.042	-.022	-.394	
자원봉사 활동만족 도	개인적 성취			.325	5.470***
	사회적 활동			.008	.158
	사회적 책임			.006	.111
F		12.129***		16.059***	
R ²		.359		.431	
ΔR^2				.072	

2. 자원봉사활동 만족도와 자아통합감 간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본 연구는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만족도와 자아통합감과의 영향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역할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은 선행연구(Baron & Kenny, 1986)에서 제안한 3단계 조절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편차점수를 사용한 조절회귀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원봉사활동 만족도의 평균을 구한 다음 편차점수를 이용하여 자기효능감과의 상호작용항을 만들어 독립변수로 투입하였으며, 종속변수인 자아통합감이 4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므로 이들 각각에 대한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1 자원봉사활동 만족도와 삶에 대한 태도 및 현재생활 간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자원봉사활동 만족도와 삶에 대한 태도 간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6][표 7]과 같다. 독

립변수인 자원봉사활동 만족도($t=2.817, p<.01$)가 삶에 대한 태도에 정(+)적 영향을 보였고, 조절변수인 자기효능감($t=16.572, p<.001$)도 정(+)적 영향력이 있었으며, 자원봉사활동 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의 상호작용항($t=2.594, p<.01$)이 삶에 대한 태도에 정(+)적 영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설명력의 변화량이 어느 정도 유의하면서 조절변수와 상호작용항이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므로 자원봉사활동 만족도와 삶에 대한 태도 및 현재생활 간의 영향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효능감이 증가할수록 자원봉사활동 만족도가 삶에 대한 태도와 현재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연구결과는 성공경험이 효능감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았던 Bandura, Anderson and Betz[21][22]의 이론과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표 6. 자원봉사활동 만족도와 삶에 대한 태도 간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독립변인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β	t	β	t	β	t
인구사회 학적 특성	성별 ¹⁾	-.173	-3.742***	-.122	-3.586***	-.112	-3.287**
	연령	.017	.324	.075	1.984*	.071	1.896
	학력	-.175	-3.279***	-.131	-3.334***	-.112	-2.829**
	직업유무 ²⁾	-.188	-3.675***	-.024	-.620	-.011	-.282
	종교유무 ³⁾	.074	1.518	.015	.413	.005	.139
	자녀동거여부 ⁴⁾	.048	1.010	.026	.753	.035	1.018
	배우자유무 ⁵⁾	.240	4.965***	.072	1.955	.065	1.772
	건강상태	-.046	-.911	-.100	-2.665**	-.115	-3.071**
	경제상태	.036	.664	.012	.295	.010	.266
	남은여성	.298	5.844***	.252	6.719***	.236	6.266***
	친구수	.087	1.696	.116	3.106**	.116	3.141**
	여가생활및장소 ⁶⁾						
	여가생활및장소1	.191	3.030**	.080	1.716	.069	1.485
여가생활및장소2	.183	3.451***	.086	2.191*	.082	2.093*	
여가생활및장소3	.271	5.062***	.194	4.896***	.200	5.108***	
자원봉사활동 만족도	.239	4.706***	.147	3.898***	.112	2.817**	
자아효능감			.594	16.214***	.609	16.572***	
자원봉사활동 만족도 * 자아효능감					.097	2.594**	
F		15.609***		43.754***		42.359***	
R ²		.437		.699		.706	
ΔR^2				.262		.007	

표 7. 자원봉사활동 만족도와 현재생활 만족 간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독립변인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β	t	β	t	β	t
인구 사회학적 특성	성별 ¹⁾	-.070	-1.622	-.054	-1.281	-.041	-.976
	연령	.150	3.121**	.169	3.569***	.164	3.495***
	학력	-.227	-4.530***	-.213	-4.349***	-.189	-3.834***
	직업유무 ²⁾	.079	1.648	.130	2.684**	.147	3.026***
	종교유무 ³⁾	.024	.536	.006	.135	-.006	-.141
	자녀동거 여부 ⁴⁾	-.116	-2.614**	-.123	-2.833**	-.111	-2.583*
	배우자유무 ⁵⁾	.086	1.909	.034	.743	.025	.551
	건강상태	-.003	-.058	-.019	-.414	-.039	-.830
	경제상태	.168	3.333***	.160	3.262***	.159	3.262***
	남은여성	.230	4.813***	.216	4.610***	.195	4.164***
	친구수	.197	4.128***	.207	4.423***	.207	4.471***
	여가생활 및 장소 ⁶⁾						
	여가생활 및 장소1	.113	1.912	.078	1.346	.064	1.112
	여가생활 및 장소2	.163	3.283**	.133	2.710*	.128	2.617**
	여가생활 및 장소3	-.081	-1.619	-.106	-2.138*	-.097	-1.976*
자원봉사활동 만족도	.330	6.930***	.301	6.409***	.257	5.198***	
자아효능감			.185	4.039***	.203	4.425***	
자원봉사활동 만족도 * 자아효능감					.121	2.604**	
F		20.599***		21.310***		20.841***	
R ²		.506		.531		.541	
ΔR^2				.025		.010	

2.2 자원봉사활동 만족도와 과거의 수용 및 노령의 수용 간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자원봉사활동 만족도와 과거의 수용 간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8][표 9]와 같다. 독립변수인 자원봉사활동 만족도(t=4.801, p<.001)가 과거의 수용에 정(+)적 영향이 있었고, 조절변수인 자기효능감(t=9.749, p<.001)도 정(+)적 영향을 보였으나, 자원봉사활동 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의 상호작용항의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설명력의 변화량이 거의 없으면서 조절변수는 유의하나 상호작용항이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으며, 자원봉사활동 만족도와 과거의 수용 간의 영향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효능감은 자원봉사활동 만족도가 과거의 수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표 8. 자원봉사 활동 만족도와 과거의 수용 간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독립변인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β	t	β	t	β	t
인구 사회학적 특성	성별 ¹⁾		-2.979**	-.099	-2.493*	-.092	-2.306*
	연령	.090	1.795	.131	2.955***	.128	2.899**
	학력	-.108	-2.058*	-.077	-1.670	-.064	-1.373
	직업유무 ²⁾	-.180	-3.584***	-.066	-1.441	-.057	-1.240
	종교유무 ³⁾	.019	.390	-.023	-.536	-.029	-.690
	자녀동거 여부 ⁴⁾	-.011	-.247	-.027	-.654	-.021	-.504
	배우자유무 ⁵⁾	.235	4.972***	.118	2.744**	.114	2.631**
	건강상태	-.230	-4.615***	-.267	-6.093***	-.278	-6.260***
	경제상태	.043	.812	.026	.564	.025	.547
	남은여성	.292	5.836***	.259	5.905***	.248	5.596***
	친구수	.115	2.303**	.136	3.095***	.136	3.104**
	여가생활 및 장소 ⁶⁾						
	여가생활 및 장소1	.211	3.409***	.133	2.438*	.126	2.296*
	여가생활 및 장소2	.183	3.524***	.116	2.511*	.113	2.447*
	여가생활 및 장소3	-.072	-1.380	-.127	-2.732**	-.122	-2.631**
자원봉사활동 만족도	.312	6.278***	.248	5.626***	.225	4.801***	
자아효능감			.413	9.620***	.423	9.749***	
자원봉사활동 만족도 * 자아효능감					.065	1.466	
F		17.138***		26.721***		25.372***	
R ²		.460		.587		.590	
ΔR^2				.127		.003	

표 9. 자원봉사활동 만족도와 노령의 수용 간 자아효능감의 조절효과

독립변인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β	t	β	t	β	t
인구 사회학적 특성	성별 ¹⁾	-.228	-4.770***	-.216	-4.555***	-.206	-4.324***
	연령	.020	.385	.033	.630	.029	.558
	학력	.195	3.531***	.205	3.734***	.223	4.022***
	직업유무 ²⁾	.027	.513	.063	1.167	.076	1.401
	종교유무 ³⁾	.244	4.848***	.231	4.606***	.221	4.404***
	자녀동거 여부 ⁴⁾	.100	2.053*	.095	1.971*	.104	2.153*
	배우자유무 ⁵⁾	.169	3.382**	.132	2.556**	.124	2.421*
	건강상태	-.109	-2.067*	-.120	-2.303*	-.136	-2.575**
	경제상태	-.006	-.114	-.012	-.212	-.013	-.234
	남은여성	.139	2.636**	.128	2.456**	.113	2.133*
	친구수	.152	2.883**	.158	3.031**	.159	3.046**
	여가생활 및 장소 ⁶⁾						
	여가생활 및 장소1	.134	2.054*	.109	1.674	.098	1.504
	여가생활 및 장소2	.034	.625	.013	.234	.008	.153
	여가생활 및 장소3	.019	.351	.002	.041	.009	.165
자원봉사활동 만족도	.238	4.549***	.218	4.149***	.183	3.295***	
자아효능감			.131	2.560**	.145	2.817**	
자원봉사활동 만족도 * 자아효능감					.096	1.827	
F		13.435***		13.237***		12.751***	
R ²		.400		.413		.419	
ΔR^2				.013		.006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만족도차이 분석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만족도 차이 분석결과

구분		개인적 성취			사회적 활동			사회적 책임		
		M	SD	t/F	M	SD	t/F	M	SD	t/F
성별	남성(n=164)	3.85	.80	2.47*	3.90	.85	.43	3.72	.69	-1.73
	여성(n=154)	3.64	.67		3.83	1.79		3.91	1.24	
연령	60-64세(n=30)	3.93	.74	1.10	3.92	.74	.14	4.30b	2.53	3.16* a(b)
	65-69세(n=138)	3.73	.68		3.82	1.86		3.74a	.63	
	70-79세(n=117)	3.69	.81		3.88	.92		3.74a	.70	
	80세 이상(n=33)	3.86	.73		3.97	.80		3.96ab	.59	
학력	무학(n=43)	3.74	.84	2.18	3.81	.97	1.10	3.98b	.81	3.31* a(b)
	초졸(n=93)	3.79	.83		3.84	.84		3.95b	1.54	
	중졸(n=104)	3.85	.68		4.05	2.12		3.84ab	.67	
	고졸이상(n=78)	3.57	.63		3.69	.69		3.52a	.45	
직업유무	있다(n=168)	3.75	.74	-.02	4.04	1.72	2.38*	3.94	1.21	2.38*
	없다(n=150)	3.75	.74		3.67	.83		3.67	.67	
종교유무	있다(n=225)	3.89	.74	5.78***	4.06	1.54	4.01***	3.93	1.12	3.21**
	없다(n=93)	3.41	.63		3.39	.71		3.54	.54	
자녀동거여부	함께 살고 있다(n=123)	3.94	.74	3.74***	3.80	.83	-.67	3.71	.67	-1.43
	함께 살지 않는다(n=195)	3.63	.72		3.91	1.65		3.88	1.16	
건강상태	매우나쁘다(n=35)	3.69	.71	1.97	3.64a	.70	2.79* a(b)	3.71a	.58	3.78* a(b)
	나쁜편이다(n=118)	3.86	.72		3.82ab	.75		3.71a	.65	
	그저그렇다(n=113)	3.63	.83		3.77ab	.92		3.76ab	1.45	
	좋은 편이다(n=52)	3.78	.55		4.36b	2.86		4.23b	.46	
경제상태	매우어렵다(n=47)	3.39a	.62	5.13** a(b)	3.38	.70	2.37	3.35a	.63	4.62** a(b)
	약간어렵다(n=135)	3.83b	.69		3.94	1.87		3.95b	1.28	
	그저그렇다(n=106)	3.84b	.83		3.98	.93		3.87ab	.68	
	어렵지 않다(n=30)	3.63ab	.69		3.92	.75		3.69ab	.76	
배우자유무	있다(n=190)	3.75	.75	.06	3.95	1.66	1.25	3.87	1.17	1.16
	없다(n=128)	3.75	.73		3.75	.82		3.73	.67	
남은 여성	3-5년이내(n=60)	3.76	.67	.02	3.81	.73	.21	3.91	.46	2.73
	5-10년이내(n=164)	3.74	.77		3.92	1.80		3.69	.72	
	10년이상(n=94)	3.76	.74		3.82	.75		3.97	1.52	
친구수	3명이내(n=75)	3.33a	.61	26.24*** a(b)(c)	3.54a	.80	3.30* a(b)	3.42a	.55	9.22*** a(b)
	3-5명이내(n=127)	3.71b	.66		3.88ab	1.94		3.84b	.63	
	5명이상(n=116)	4.06c	.76		4.07b	.81		4.04b	1.40	
여가생활 및 장소	노인정(n=99)	3.57a	.79	12.40*** a(b)	3.61a	.94	4.02** a(b)	3.60a	.77	3.12* a(b)
	복지회관(n=47)	4.25b	.70		4.19b	.66		4.11b	.53	
	취미생활(n=78)	3.87a	.60		3.66a	.65		3.81ab	.49	
	산책,운동(n=94)	3.59a	.69		4.15ab	2.19		3.89ab	1.53	

V. 결론

본 연구는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만족도가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봉사활동 만족도가 자아통합감이 미치는 영향 면에서 사회적 활동과 사회적 책임을 제외하고 개인적 성취가 삶에 대한 태도와 현재 생활만족, 과거수용과 노령의 수용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적 활동과 책임이 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노인들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그다지 사회적 활동과 책임을 크게 느끼지 못함을 알 수 있겠다. 이 결과는 종교적 가르침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자녀, 손자녀의 모범이 되고 인격수양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자신의 삶을 보다 가치 있게 만드는 등 개인적 성취로 인해 자원봉사활동에 만족할수록 삶에 대한 태도와 현재생활만족, 과거의 수용, 노령의 수용이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자원봉사활동 만족도와 자아통합감 간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면에서는 연구결과 설명력의 변화량이 어느 정도 유의하면서 조절변수와 상호작용항이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므로 자원봉사활동 만족도와 삶에 대한 태도 및 현재생활 간의 영향관계에서 자아효능감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효능감이 증가할수록 자원봉사활동 만족도가 삶에 대한 태도와 현재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효능감이 자아통합감의 과거 및 노령의 수용에는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자원봉사만족도가 과거나 노령의 수용보다 삶에 대한 태도와 현재생활에 더 많은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원봉사활동만족도, 자기효능감 및 자아 통합감의 차이는 성별, 연령, 학력, 직업유무, 종교유무, 자녀동거여부, 건강상태, 경제상태, 친구 수, 여가생활 및 장소에 따라 부분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시사점은 지금까지 노인의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주로 자원봉사활동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와 자원봉사활동이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등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원봉사활동만족도가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특히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도출하여 자기효능감이 자아통합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를 요약하면

자원봉사활동 만족도는 자아통합감에 영향을 미치며,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면에서 자아통합감의 삶에 대한 태도와 현재 생활만족의 영향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효능감이 증가할수록 자원봉사활동 만족도가 삶에 대한 태도와 현재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기효능감면에서 노년기에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도전하거나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삶에 대한 태도와 현재 생활에 만족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인에게 있어서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인 지원과 자기효능감을 증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의 개발이 필요하며, 자기효능감을 증대 할 수 있는 노년기 자아발견 및 자기계발과 관련된 분야의 연구와 지원 등이 요구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규명하지 못한 자원봉사만족도 요인에서 개인의 성취를 제외한 사회적활동과 사회적책임이 자아통합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부분과 자기효능감의 자아통합감의 조절효과에서 제외된 과거의 수용 및 노령의 수용 등의 증진을 위한 연구는 추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자기효능감을 조절효과로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만족도가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었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다만 본 연구의 대상이 경기도 지역에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는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전국 규모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1] 세계보건기구(WHO), 2013.
- [2] CBS 노컷뉴스, 2013. 7. 24.
- [3] 동아일보, “어느 95세 어른의 수기”, 2008. 8. 14.

- [4] 리해근, 하규수, “노인의 일상생활 요인이 삶의 만족도 요인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6호, pp.280-295, 2012
- [5] J. D. Teaff, *Leisure Service with the Elderly*, N.Y. Times Mirror Mosby College Pub., 1985.
- [6] 이성록, *자원봉사 매너지먼트*, 금영에드컴, 2003.
- [7] M. A. C. Hrubetz, “Insights and Inquiry: Seeking Balance,”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Vol.17, No.5, p.217, 2001.
- [8] E. A. Locke, “The Nature and Causes Job Satisfaction. in M. D. Dunnette,” *Handbook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Chicago, Rand McNally, 1976.
- [9] R. J. Habighurst and Albrecht, *Older people Longman Green Company*, 1980.
- [10] R. Larson, “Thirty years of Research on the Subjective Well-being of Older Americans,” *Journal of Gerontology*, Vol.33, No.1, pp.109-129, 1978.
- [11] N. J. Chapman and Beaudet, “Well-being for At Risk older Adult in mid sized city,” *Environmental Journal of Gerontology*, Vol.38, pp.237-244, 1983.
- [12] G. R. Francies, *The Colunteer Needs Profile*, Wisconsin, University of Wisconsin, 1982.
- [13] G. Manser and R. H. Cass, *Voluntarism at the Crossroads*, New York: Family Service Association of America, 1976.
- [14] M. Bernard, “Voluntary care for the elderly mentally in firm and their relatives,” *A British example : The Germtologist*, pp.116-119, 1984.
- [15] 조휘열, *현대사회와 자원봉사*, 흥익제, 1999.
- [16] 김한구, *자원봉사론*, 백산출판, 2003.
- [17] 김창석, *노인자원봉사활동 참여 동기유형과 자원봉사활동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호서 벤처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1.
- [18] L F. Moore, *Motivating Volunteers Vancouver*, The Vancouver Volunteers Centers Pub, 1985.
- [19] A. Bandura, “Self 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Vol.84, No.2, pp.191-215, 1977
- [20] Bandura,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y*, Vol.37, No.1, pp.122-125, 1986.
- [21] Bandura, *Self-efficacy: The e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and company, 1997.
- [22] S. L. Anderson and N. E. Betz, “Sources of social self efficacy expectations: Their measurement and relation to career dec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58, pp.98-117, 2001.
- [23] E. H. rikson, “Childhood and Social 2nd ed”.. New York: Norton R, 1963, “Thirty years of Research on the Subjective Well Being of Older Americans,” *Journal of Gerontology*, Vol.33, No.1, 1978.
- [24] 변호순, 김교성, “미신고 복지시설 노인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다중분석”, 한국노년학, 제25권, 제4호, pp.147-165, 2005.
- [25] 장성옥, 공은숙, 김귀분, 김남초, “노인의 자아 통합감 개념분석”, 대한간호학회지, 제34권, 제7호, pp.1172-1183, 2004.
- [26] 장인협, 최성재,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 [27] 김정순, *노인의 사회적 활동과 자아통합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9.
- [28] 이미란, *노인의 건강성과 자아통합감에 관한 연구 : 가족지지 매개효과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29] 주희정, *노인의 자아 통합감과 영향요인*,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30] 김정순, *노인의 사회적 활동과 자아통합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8
- [31] G. Barrow, *Ageing, The Individual and Society(5th ed)*, St, paul, MN: West Pbilishing Company, 1992.

- [32] 김명수, *한국경로당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33] V. L. Bengtson, "Cultural and occupational differences in level of present role activity in retirement," *Adjustment to retirement: A cross national study*, 1969
- [34] 이성옥, *자원봉사참여노인의 생활만족에 끼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35] 김지현, 강연옥, 유경, 이주일, "성공적 노년기의 자아통합감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제23권, 제4호, pp.115-130, 2009.
- [36] 윤진, *노인심리학*, 노인적성출판사, 1986.
- [37] 전산초, 최영희, *노인간호학*, 서울 수문사, 1992.
- [38] A. Berman and J. E. Hays, "Relation between death anxiety, belief in afterlife, and locus of control,"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Vol.41, pp.318-321, 1975.
- [39] C. A. Miller, *Nursing care of older adults: Theory and Practice*, 3rd. ed, Philadelphia, New York, Baltimore: Lippincott, 1999.
- [40] 장인협, 최성재, *노인복지학*, 서울대 출판부, 1996
- [41] Erikson, *The life cycle Completed*, New York: Norton, 1997.
- [42] E. H. Erikson, *Childhood and Society (2nd ed.)*, New York, Norton, 1963.
- [43] 최금주, 제성봉, "노인의 영성이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인복지학회,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38, pp.109-126, 2007.
- [44] Miller, *Theories of developmental psychology*, W.H., 1983.
- [45] M. Shere, J. E. Maddux, B. Mercandante, S. Prentice-Dunn, B. Jacobs, and R. W. Rogers,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1982.

저 자 소 개

이 안 나(An-Na Lee)

정회원



- 2011년 :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노인 복지학 석사
- 2013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노인복지학 박사과정

<관심분야> 노인심리, 노인상담 등

조 성 숙(Sung-Sook Cho)

정회원



- 1975년 :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경제학사)
- 1982년 : University of Kansas 경제학석사
- 1987년 :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경제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교수

<관심분야> 금융경제복지, 고령친화산업